

고등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Perception of Parenting on th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 from the High School Students' Perspective

홍 승 연¹, 박 명 자^{2*}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¹,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²

Hong, Seung Yeon¹, Park, Myung-Ja^{1*}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¹,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²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desirable child-rearing attitude and roles of parents in order to raise the high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level of family relations, by analyzing how the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roles that the students perceive as affect the satisfaction level. Also, since the self-recognition of the students'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roles will directly affect them as future parents, this study focuses on helping them establish the right idea and roles of parenting. The study targets were selected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data was analyzed from the questionnaires distribute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8.0;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credi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ANOVA were performed, and as a post-hoc, Duncan test was performe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earing attitude as well as parenting roles, and the family relations satisfaction, the authoritative/neglecting type showed negative (-) correlation with cohesion and intimacy, whereas the professional type showed positive (+) correlation with cohesion and intimacy. The parents' roles in discipline, satisfying basic needs, health/surviving skills education, and sexual education all showed positive (+) correlation with cohesion and intimacy. In terms of the effect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roles on family relations satisfaction, the professional type showed to affect the cohesion, and the authoritative/neglecting type showed no correlation with cohesion. The discipline in the parenting roles showed a big correlation to cohesion, which means that the discipline of the children is highly perceived as a factor that makes the family more cohesive. In case of intimacy, the professional type out of different child-rearing attitudes was shown to influence intimacy, and the authoritative/neglecting typ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to intimacy. The higher the roles of satisfying basic needs and discipline, the higher the intimacy level; health/surviving skills education and sexual education showed no correlation to intimacy. In conclusion, the satisfaction level of family relations is high when the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 that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cknowledges their interest and individuality, and the satisfaction level is low when the parents are authoritative and neglecting the students' ideas and needs. In terms of parenting roles, when the students are positively satisfied with overall parenting roles, not just one of them, the satisfaction level of family relations is also high.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 Child-rearing attitude; Parenting;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

주제어 : 고등학생, 양육태도, 부모역할, 가족관계 만족도

1. 서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시점부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지내게 된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각인되어지는 성품, 지능, 정서, 도덕성, 사회성 그리고 신체적 건강 발달 등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기본구조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비교적 가정의 영향력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 한국적 가정을 살펴보면, 인간발달

* Corresponding Author : Park, Myung-Ja

Tel : 82-2-2220-1192, E-mail : mjapark@hanyang.ac.kr

과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오영희와 엄정애, 1999).

현대 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지식정보화 시대로 변화됨으로써 다양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변화는 현대의 가족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는 가족내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역할 및 가족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녀 양육을 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의 담당은 아내의 역할로써 인식되었던 과거 전통사회와는 달리 가족 내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역할을 사회가 많은 부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정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천윤숙, 2007).

이처럼 가족 내의 기능이 상당부분 사회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역할들, 부모가 해야 할 역할들이 변화, 혹은 붕괴됨으로써 가족 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등이 가족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가족 내에서는 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기반이 될 뿐만 특히 청소년 시기는 성인으로 가기위한 바로 전단계로서 무엇보다 올바른 자기신념,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에 대한 지각이 앞으로 미래의 부모관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가정환경은 인간형성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어린 시절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가정환경에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인적요인이 중요하며, 이 중에서도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부모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과 훈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더욱이 부모는 아동이 성인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의 모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델링에 의해서 아동들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 가치관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정원식, 1977). 즉 자녀들은 부모의 애정과 보호, 통제를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발달해 가고, 부모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김영희와 최명선, 2001). 아울러 가정을 구성하는 집단원은 다른 기관인 학교나 사회기관을 구성하는 집단보다 심리적으로 가장 강한 유대를 맺고 있다(정원식, 1977).

이처럼 가정을 구성하는 집단원과의 관계 즉 가족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

화 속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생활 속에서 상호작용 가운데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의미하는데, 가족원의 관계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의 하위개념의 하나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와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개념을 찾을 수 있다(백용운과 이태숙, 2010).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행동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인식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에 있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성인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심리적 불안과 내적갈등을 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어느 때보다 이들에 대한 그들의 올바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미래에 부모가 될 예비 부모로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부모역할과 부모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가족관계 개선 및 올바른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보통 사춘기라 불리며,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로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요한 발달상 과도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마지막 시기라 할 수 있다(황규숙, 1999). 또한 지금까지 아무런 회의 없이 수용하였던 자기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의문과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지는 시기이기도하다(이경화 등, 2008).

Erikson에 따르면 이시기를 정체감 대 역할혼미 시기라 하여 이 시기의 중심과제를 자아정체감의 확립으로 정의하였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자기의 위치나 능력 또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식하고 직업의 역할이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졌을 때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혜선과 유안진, 2011). 그러나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동료집단이나 혹은 외부로부터 동일시 대상을 찾으려 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시험해 보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 시기는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기 보다는 또래집단이나 외부기관을 통해 자신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과 지지는 자녀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이경화 등, 2008). 이 시기의 부모는 특히 자녀 스스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성숙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칫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부모-자녀간 진실된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김양희, 2000).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 중 일부를 살펴보면 Havighurst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정서적으로 독립을 이루는 일,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 책임 있는 행동을 요망하고 수행하는 일, 행동의 지표로서 가치관과 윤리체계를 습득하는 일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나은경, 1992), 이러한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 시기에 노력을 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남녀 간의 역할,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기에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서 무엇보다 결혼과 가정, 부모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정립이 필요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

1) 부모의 양육태도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화 된 사회에 살고 있으며, 과거 대가족화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자녀에 대한 교육이 가정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을 때와는 달리 핵가족화 된 현대 가족형태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자녀는 가정교육의 시작을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인지하는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의 문제가 작아지며(남상철, 2004),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김혜영, 2007).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인지함으로써 가족관계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가족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느끼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의 통제와 거부, 어머니의 자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규석, 1999),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처럼 자녀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유형의 양육태도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양육태도로 인지하고 있는 양육태도의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며,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① 양육태도의 개념

양육태도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뜻한다(김숙이, 2005). 또한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중의 하나가 바로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로 맞는 교육자임과 동시에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영속적이고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정숙연, 1995).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개개인의 인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양희, 2000). 이는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가장 처음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차이가 발생될 정도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Freud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성격과 사회적 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 왔는데(Becker, 1964), 자녀들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양육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문제행동 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친밀성이 강조된다고 하였다(노성호, 1992).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발달초기에 자녀의 성격, 동기 및 행동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도 하였다(황규숙, 1999).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인지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실제적인 영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정상모, 2001).

②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한 Symonds(1949)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거부-보호, 지배-복종으로 하는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지배에는 다시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애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나누었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두가지 차원에서 각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 하였다(정숙연, 1995).

쉐퍼(Schaefer)가 분류한 양육태도로서 애정적-자율적 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로 대하여, 늘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이런 태도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란다고 하였다(김정애, 1999). Becker는 온정 대 적대, 제한 대 허용으로 구분하였고, 온정에는 애정, 수용, 승인, 이해, 자녀중심의 행동, 빈번한 설명, 의존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칭찬등을 포함시켰고, 적대에는 부모의 부정적 반응, 거부, 질책 등을 포함시켰다. 제한에는 예의범절, 정리정돈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들었고, 허용에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들었다(류희정, 2009).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 검사지로 사용된 Baumrind(1978)의 부모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의 유형을 통제와 허용의 정도에 따라 권위형, 전문형, 허용형으로 분류하였다(박건주, 2009). 각 유형별 특징을 보면, 먼저 권위적 유형의 특징으로는 아동의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아동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을 주거나 강압적 행동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전문형 유형의 특징으로는 개인의 흥미와 개성을 인정하고 부모가 사랑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아동의 능력을 잘 키우는 유형을 말한다. 전문형의 부모는 아동의 능력 뿐 아니라 자존심도 길러준다.

허용형 유형의 특징으로는 부모가 아동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아동의 행동을 눈감아주며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아동을 제약하지 않고 양육하며 아동이 자신의 성장에 책임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위에 제시된 학자별 양육태도의 공통된 부모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수용적 태도, 익애적 태도,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허용적 태도, 포부적 태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수용적 태도로는 부모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사랑스럽게 대하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양육태도 하에 성장한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익애적 태도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자녀를 어린애 취급하여 지나치게 보호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양육태도 하에 성장한 자녀는 흥분, 수줍음, 불안감, 초조함 등의 특성이 나타나며, 성숙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에 쉽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거부적 태도로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양육태도를 말하며, 거부적 태도로 자란 아이들은 가장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양육태도이다. 지배적 태도로는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를 하며 자녀에게 엄격하고 권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양육태도 하에 성장한 자녀는 자주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며, 열등감을 잘 느끼고, 늘 금지당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허용적 태도로는 지배적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자녀를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태도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부모가 주로 취하는 양육태도이다. 이런 양육태도 하에 자란 자녀는 책임감이 없고, 권위를 무시하며, 도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 중 민주적인 부모를 둘 경우 높은 학교 적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애, 1999),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학습우수아의 부모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지향성과 합리성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부진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상대적으로 적대적이고 통제와 비성취지향성, 비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오걸, 2005).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거부와 부모과보호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부모애정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하경,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자기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애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홍원영, 2005).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각각 하는 고등학생이 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수영, 2012), 부모 양육태도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에서는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우울과 자살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류희정, 2010).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를 종합해보면, 자녀를 존중하고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역할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과 발달을 시작하는 최초의 생활환경은 가정이다. 가정의 환경적 요인 중에서 부모는 최초의 인적 환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행동을 부모와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배워간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자체가 이러한 특성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차적인 경험 자료가 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부모를 모방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사랑과 존경으로 이루어질 때만 용이하다. 즉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의 역할행위를 배우는 기본적인 방식인 것이다(이경화 등, 2008).

부모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가족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아버지는 가족구성원에게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녀의 행동을 훈련, 통제하는 역할, 최종의 판단자이며 벌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김양희, 2000). 또한 Parsons와 Bales(1955)는 부모역할에 대해 구조적 측면으로 논의한 결과, 아버지는 가족체계 내에서의 사회적 대표자이며, 사회체계 내에서 가족의 대표자로 모범되는 행동과 가치관을 선보이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고, 어머니는 애정과 감정문제에 대해 담당하는 표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강진희, 2000).

그러나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분화가 융통성 있게 변화되고 있다. 즉 기존 아버지의 주 역할이었던 도구적, 통제적 역할에서 어머니의 역할담당이었던 애정적, 표현적 역할을 덧붙여 기대하게 되었으며, 어머니 역시 표현적 역할 뿐 아니라 도구적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김양희, 2000).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부모 역할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책임은 더욱 증가되고 있고, 과거 전통적 유교사상을 근거로 한 부모의 가치관과 민주교육을 기초로 한 자녀의 가치관의 불일치로 인해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는 부모-자녀관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효정, 1995).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교육, 특히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교우관계, 자아개념 형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역시 부모-자녀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경화 등, 2008). 이와 같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무엇보다 올바른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관 및 자녀관에 관한 연구에서 바람직한 부모상은 학식이나 경제력 보다는 이해심이 많으며 건강한 부모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예비부모로서 인간의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사춘기와 유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이순희, 1985). 문수경(200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부모의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역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지원 중 정서적 지원이 부모-자녀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물질적인 측면이 자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가장 우선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원만할 때, 학업성적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부모-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부모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양육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자녀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서도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인지한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인으로 가는 바로 전 단계이자 예비 부모가 될 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올바른 부모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3.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은 사회를 유지, 존속케 하는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필수적인 사회집단이다(김양희, 2000). 또한 개인의 성격 및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므로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 중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한혜숙, 1992). 일반적으로 가족은 전통적으로 혈연이나 결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는데, Laing(1972)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 일정한

간 동안 함께 사는 사람들의 관계망'이라 가족을 정의하였고, Terkelsen(1980)은 '상호간의 강한 애정과 충성으로 맺어진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가구 혹은 가구의 집합을 이루는 소규모의 사회체제'라고 정의하였다(박수원, 2003). 이는 가족 구성원간이 상호 연결된 관계라는 점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가족 내 구성원들은 전 생애 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관계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그 가족만의 가족사건, 관계패턴, 기대된 행동에 대해 공유된 습관화된 전통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가족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청소년기 이전에 형성된 상호작용의 양식과 역할기대들이 함께 유지해 나간다(김효정, 1995).

가족관계는 대인관계의 모태이며, 가정이 대인관계 훈련의 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족 개개인의 발달과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정성경, 2005). 또한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의 상호간의 인간관계로서 가족구성원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기도 하는데, 가사분담이나 권리의무관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가족행동에 있어서의 총체이며, 상호작용의 역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박현숙, 2003).

보편적으로 가족은 부부 관계를 기초로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독립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가족이라는 하나의 통일체를 만들어 그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오유자, 2004). 즉 이러한 가족관계 틀의 기초 하에 가족의 권력이나 의사소통, 친밀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박현숙, 2003). 특히 가족관계 중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전면적, 보편적, 영구적이며 깊은 애정으로 맺어져있는 관계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김효정, 1995).

청소년기에는 부모나 가족보다는 친구관계 즉 또래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친구관계나 다른 사회적 기관에서 대체할 수 없는 가족이 지닌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매우 밀접하고도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애정과 신뢰, 위안과 존경 등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얻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청소년들은 행동과 적응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내부의 관계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조미숙과 오선주, 1999).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원만할 때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류진선, 2009), 강란혜(2006)는 가족관계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구에서는 가족관계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우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가족관계 변인으로, 아동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에 가족관계의 지지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이 인지하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남(박윤정, 2011)을 알 수 있었고, 이국화(2012)의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의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문제해결력, 의사소통과 유대감, 재정적 안정에 있어 높다고 인식한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가족관계 만족도는 또한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다양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은 노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젊은 시절의 만족도 수준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가 전 생애에 걸쳐 생활만족도에 중요하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효정, 199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측정도구, 연구대상, 자료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떠한가?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떠한가?
3.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측정도구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의 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6문항,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20문항, 부모역할 31문항, 가족관계 만족도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적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 측정도구

①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정상모(2001), 박건주(2009)의 선행연구를 기초로하여 구성하였는데, 이는 Baumrind 및 Maccoby와 Martin의 이론을 토대로 부모유형을 허용형(acceptance)과 통제(control)의 정도에 따라 전문형, 권위형, 허용형, 무시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검사지는 Baumrind 및 Maccoby와 Martin이 제시한 내용과 Fels 연구소의 Parent Behavior Rating Scales(PBRS)을 변안한 김재은(1974)의 검사 척도 및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 태도 검사지 중 부모 유형과 관련된 것을 선정하여 총 20문항 구성하였고, 4단계 Likert척도에서 5단계 Likert척도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전문형은 자녀의 흥미와 개성을 인정하고 부모가 사랑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능력을 키워주는 유형을 말하며, 권위형은 자녀를 예측시키고 자율을 막으며, 대화의 소통을 금지하고, 부모의 말이 다 옳다고 수용하게 하여 자녀의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유형을 말한다. 무시형은 자녀의 생각과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으며, 자녀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정적 의미의 유형을 말하고, 허용형은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며, 자녀의 행동과 충동을 눈감아 주는 유형을 말한다.

② 부모역할인식

부모역할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은 강진희(2000), 정순태(2002)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자녀 훈육역할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공동생활과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육구 충족역할은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자녀를 위협에서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교육 역할은 가족, 친척,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③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오유자(2004), 박건주(2009)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응집성, 친밀성, 신뢰성 등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와주고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친밀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이가 매우 좋고 친한 정도를 의미하고, 신뢰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믿고 의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요인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타당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이미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던 설문항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사용한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였고, 또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하여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데이터의 총 분산을 이용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이를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시켜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① 부모 양육태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로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 .841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886.922($p < .001$)로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을 하면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 11문항은 제외시켰으며,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이상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60.169%로 나타났다. 분류된 하위 요인은 권위/무시형, 전문형, 허용형으로 명명하였고, 다수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요인으로 대변하였다.

그 결과 권위/무시형은 Cronbach's $\alpha = .787$, 전문형 Cronbach's $\alpha = .735$, 허용형의 Cronbach's $\alpha = .264$ 로 나타났다. 권위/무시형, 전문형은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허용형의 경우 요인이 분류 되었으나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 = .264$ 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권위/무시형, 전문형 이 두가지 요인만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요인을 분석하면서 부모님은 편리 혹은 분위기에 따라 나를 대하시며 일관성이 없으시다 라는 문항이 선행 연구 상에는 허용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연구자는 자녀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고 부모의 편리, 분위기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무시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요인 분석 후 권위/무시형의 요인으로 묶었다.

② 부모역할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부모역할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 .914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842.885($p < .001$)로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을 하면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 12문항은 제외시켰으며,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 이상이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63.666%로 나타났다. 분류된 하위 요인은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 역할로 명명하였고, 다수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요인으로 대변하였다. 그 결과 자녀 훈육역할의 Cronbach's α =.904, 기본육구 충족역할의 Cronbach's α =.776,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의 Cronbach's α =.699, 성교육 역할의 Cronbach's α =.83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③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 .935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642.255($p<.001$)로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을 하면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 6문항은 제외시켰으며,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 이상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 설명력은 61.048%로 나타났다. 분류된 2개의 하위 요인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도와주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속력,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이가 매우 좋고 친한 정도를 의미하는 친밀성으로 명명하였고, 다수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두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내어 하나의 요인으로 대변하였다. 그 결과 결속력 Cronbach's α =.930, 친밀성 Cronbach's α =.8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경기지역 남·녀 고등학생으로 3개 학교를 선정하여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0월22일에서 10월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총420부 중 403부가 회수되어 95.9%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무성의한 대답을 하고, 누락된 설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94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부모 및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이 뚜렷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직접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는 마지막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별은 남학생 116명(39.5%), 여학생 178명(60.5%)로 나타났다,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155명(52.7%), 3학년 139명(47.3%)으로 고등학교 2학년은 연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맏이가 104명 (35.4%), 중간 19명 (6.5%), 막내 141명(48%), 외동 30명(10.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직 77명(26.9%), 사무직 62명(21.7%), 숙련직 54명 (18.9%), 관리직 45명(15.7%), 전문직 13명(4.5%), 단순노동과 반숙련직은 각각 12명 (4.2%), 무직 11명(3.8%)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 79명(27.5%), 사무직 74명(25.8%), 판매직 46명(16%), 반숙련직 29명(10.1%), 단순노동 27명(9.4%), 전문직 13명(4.5%), 숙련직 12명(4.2%), 관리직 7명(2.4%)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 17명(5.9%), 고졸 149명(52.1%), 대졸이상 120명(42%)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21명 (7.3%), 고졸 193명(67.2%), 대졸이상 73명(25.4%)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수입은 200만원 미만 32명(10.9%), 200~300만원 미만 76명(25.9%), 300~400만원 미만 94명(32%), 400~500만원 미만 46명(15.6%), 500만원 이상 46명(15.6%)으로 나타났다.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N | % |
|----------------------|--------------|-----|------|
| 성 별 | 남 | 116 | 39.5 |
| | 여 | 178 | 60.5 |
| 학 년 | 1학년 | 155 | 52.7 |
| | 3학년 | 139 | 47.3 |
| 출생순위 | 맏이 | 104 | 35.4 |
| | 중간 | 19 | 6.5 |
| | 막내 | 141 | 47.9 |
| | 외동 | 30 | 10.2 |
| 아버지 직업 ¹⁾ | 무직 | 11 | 3.8 |
| | 단순노동 | 12 | 4.2 |
| | 반숙련직 | 12 | 4.2 |
| | 숙련직 | 54 | 18.9 |
| | 판매직 | 77 | 26.9 |
| | 사무직 | 62 | 21.7 |
| | 관리직 | 45 | 15.7 |
| | 전문직 | 13 | 4.6 |
| 어머니 직업 ²⁾ | 무직 | 79 | 27.5 |
| | 단순노동 | 27 | 9.4 |
| | 반숙련직 | 29 | 10.1 |
| | 숙련직 | 12 | 4.2 |
| | 판매직 | 46 | 16.0 |
| | 사무직 | 74 | 25.8 |
| 아버지 학력 ¹⁾ | 중졸 이하 | 17 | 5.9 |
| | 고졸 | 149 | 52.1 |
| | 대졸이상 | 120 | 42.0 |
| 어머니 학력 ²⁾ | 중졸 이하 | 21 | 7.3 |
| | 고졸 | 193 | 67.3 |
| | 대졸이상 | 73 | 25.4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10.9 |
| | 200~300만원 미만 | 76 | 25.9 |
| | 300~400만원 미만 | 94 | 32.0 |

| | |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15.6 |
| | 500만원 이상 | 46 | 15.6 |
| 합계 | | 294 | 100.0 |

¹⁾한부모 가정 8명 제외; ²⁾한부모 가정 8명 제외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인식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할, 가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을 분석하고, 타당성 있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직각 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s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

1)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기술통계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문형(M=3.23)이 권위/무시형(M=1.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에 대한 양육태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역할은 기본육구 충족역할(M=3.6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 훈육역할(M=3.57),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M=3.20), 성교육 역할(M=2.78)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 중 성교육 역할

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성교육에 대한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부모교육에 있어 자녀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결속력(M=3.28), 친밀성(M=3.24)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 구 분 | | M | SD |
|----------|--------------|------|-----|
| 부모의 양육태도 | 권위/무시형 | 1.93 | .66 |
| | 전문형 | 3.23 | .73 |
| 부모역할 | 자녀 훈육역할 | 3.57 | .72 |
| | 기본육구 충족역할 | 3.69 | .64 |
| |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 3.20 | .80 |
| | 성교육 역할 | 2.78 | .98 |
| 가족관계 만족도 | 결속력 | 3.28 | .77 |
| | 친밀성 | 3.24 | .80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할, 가족관계 만족도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 태도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권위/무시형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M=2.01), 고등학교 3학년(M=1.83)으로 3학년이 1학년 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무시형에 대해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69$, $p<.05$). 성별에 따라, 출생순위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 수입에 따른 권위/무시형의 인식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 1학년 보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1학년에 비해 3학년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권위/무시형의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F | p |
|-----|-----|-----|------|-----|--------|------|
| 성 별 | 남 | 116 | 1.93 | .58 | .059 | .953 |
| | 여 | 178 | 1.92 | .70 | | |
| 학 년 | 1학년 | 155 | 2.01 | .73 | 2.369* | .018 |
| | 3학년 | 139 | 1.83 | .54 | | |

| | | | | | | |
|----------|--------------|-----|------|-----|-------|------|
| 출생순위 | 말이 | 104 | 2.01 | .74 | 1.539 | .205 |
| | 중간 | 19 | 2.07 | .59 | | |
| | 막내 | 141 | 1.85 | .60 | | |
| | 외동 | 30 | 1.88 | .60 | | |
| 아버지 학력 | 중졸 이하 | 17 | 1.79 | .62 | .618 | .540 |
| | 고졸 | 149 | 1.96 | .70 | | |
| | 대졸이상 | 120 | 1.91 | .61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21 | 1.75 | .52 | .842 | .432 |
| | 고졸 | 193 | 1.94 | .67 | | |
| | 대졸이상 | 73 | 1.90 | .60 | |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1.78 | .57 | 1.156 | .331 |
| | 200~300만원 미만 | 76 | 2.03 | .63 | | |
| | 300~400만원 미만 | 94 | 1.91 | .75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1.98 | .60 | | |
| | 500만원 이상 | 46 | 1.83 | .58 | | |

* p<0.05

②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형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M=3.31), 200~300만원 미만(M=3.07), 300~400만원 미만(M=3.25), 400~500만원 미만(M=3.15), 500만원 이상(M=3.51)으로 500만원 이상이 전문형으로 인식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200~300만원 이상 보다 전문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890, p<.05). 성별이나,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 어머니 학력에 따른 전문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이수영(2012)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노미경(2008)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 학력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Table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형의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F | p |
|-------|-------|-----|------|-----|-------|------|
| 성 별 | 남 | 116 | 3.27 | .74 | .754 | .452 |
| | 여 | 178 | 3.21 | .73 | | |
| 학 년 | 1학년 | 155 | 3.23 | .78 | -.039 | .969 |
| | 3학년 | 139 | 3.24 | .68 | | |
| 출생순위 | 말이 | 104 | 3.25 | | .76 | .673 |
| | 중간 | 19 | 3.04 | | | |
| | 막내 | 141 | 3.23 | | | |
| | 외동 | 30 | 3.34 | | | |
| 아버지 학 | 중졸 이하 | 17 | 3.07 | .86 | .492 | .612 |

| | | | | | | |
|----------|--------------|-----|--------------------|-----|--------|------|
| 력 | 고졸 | 149 | 3.23 | .74 | .855 | .426 |
| | 대졸이상 | 120 | 3.26 | .70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21 | 3.17 | .74 | .77 | .426 |
| | 고졸 | 193 | 3.21 | .72 | | |
| | 대졸이상 | 73 | 3.34 | .77 | |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3.31 ^{AB} | .77 | 2.890* | .023 |
| | 200~300만원 미만 | 76 | 3.07 ^{1B} | .71 | | |
| | 300~400만원 미만 | 94 | 3.25 ^{AB} | .78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3.15 ^{AB} | .63 | | |
| | 500만원 이상 | 46 | 3.51 ^A | .67 | | |

* p<0.05; A, B :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Duncan)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 훈육역할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5에서와 같이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 어머니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훈육역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처럼 자녀 훈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인식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자녀 훈육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 훈육역할의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F | p |
|----------|--------------|-----|------|-----|--------|------|
| 성 별 | 남 | 116 | 3.63 | .67 | 1.219 | .224 |
| | 여 | 178 | 3.53 | .75 | | |
| 학 년 | 1학년 | 155 | 3.51 | .78 | -1.559 | .120 |
| | 3학년 | 139 | 3.64 | .64 | | |
| 출생순위 | 말이 | 104 | 3.62 | .68 | .399 | .754 |
| | 중간 | 19 | 3.45 | .75 | | |
| | 막내 | 141 | 3.55 | .76 | | |
| | 외동 | 30 | 3.61 | .65 | | |
| 아버지 학력 | 중졸 이하 | 17 | 3.48 | .77 | .137 | .872 |
| | 고졸 | 149 | 3.56 | .73 | | |
| | 대졸이상 | 120 | 3.58 | .69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21 | 3.43 | .86 | .759 | .469 |
| | 고졸 | 193 | 3.61 | .69 | | |
| | 대졸이상 | 73 | 3.53 | .77 | |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3.74 | .82 | 1.288 | .275 |
| | 200~300만원 미만 | 76 | 3.50 | .67 | | |
| | 300~400만원 미만 | 94 | 3.50 | .76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3.58 | .55 | | |
| | 500만원 이상 | 46 | 3.71 | .77 | | |

②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육구 충족역할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M=3.78), 1학년(M=3.60)으로 3학년이 1학년 보다 기본육구 충족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67$, $p<.05$).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M=3.81), 200~300만원 미만(M=3.54), 300~400만원 미만(M=3.68), 400~500만원 미만(M=3.59), 500만원 이상(M=3.93)으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200~300만원 이상 보다 기본육구 충족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347$, $p<.05$). 성별이나 출생순위, 아버지, 어머니 학력에 따른 기본육구 충족역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기본육구 충족역할에 대한 인식은 학년에 따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본육구 충족역할의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F | p |
|----------|---------------------------|-----|--------------------|-----|---------|------|
| 성 별 | 남 | 116 | 3.67 | .68 | -.361 | .718 |
| | 여 | 178 | 3.70 | .62 | | |
| 학 년 | 1학년 | 155 | 3.60 | .71 | -2.367* | .019 |
| | 3학년 | 139 | 3.78 | .53 | | |
| 출생순위 | 말이 | 104 | 3.70 | .69 | .981 | .402 |
| | 중간 | 19 | 3.44 | .63 | | |
| | 막내 | 141 | 3.70 | .60 | | |
| | 외동 | 30 | 3.71 | .65 | | |
| 아버지 학력 | 중졸 이하 | 17 | 3.64 | .80 | .047 | .954 |
| | 고졸 | 149 | 3.68 | .63 | | |
| | 대졸이상 | 120 | 3.69 | .63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21 | 3.44 | .67 | 1.928 | .147 |
| | 고졸 | 193 | 3.71 | .60 | | |
| | 대졸이상 | 73 | 3.73 | .70 | |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3.81 ^{AB} | .69 | 3.347* | .011 |
| | 200~300만원 미만 ^A | 76 | 3.54 ^B | .51 | | |
| | 300~400만원 미만 | 94 | 3.68 ^{AB} | .71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3.59 ^{AB} | .52 | | |
| | 500만원 이상 ^B | 46 | 3.93 ^A | .70 | | |

* $p<.05$; A, B :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Duncan)

③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M=3.22)이 남학생(M=3.17)보다, 1학년(M=3.25)이 3학년(M=3.25)보다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에 대

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동(M=3.32), 아버지 학력이 대졸(M=3.22)이상인 청소년, 어머니 학력이 고졸(M=3.21), 대졸(M=3.21)이상인 청소년,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M=3.46)인 청소년이 건강/생존기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건강/생존기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의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F | p |
|----------|--------------|-----|------|-----|-------|------|
| 성 별 | 남 | 116 | 3.17 | .79 | -.527 | .599 |
| | 여 | 178 | 3.22 | .81 | | |
| 학 년 | 1학년 | 155 | 3.25 | .87 | .953 | .341 |
| | 3학년 | 139 | 3.16 | .71 | | |
| 출생순위 | 말이 | 104 | 3.29 | .74 | 1.076 | .359 |
| | 중간 | 19 | 3.16 | .68 | | |
| | 막내 | 141 | 3.12 | .88 | | |
| | 외동 | 30 | 3.32 | .69 | | |
| 아버지 학력 | 중졸 이하 | 17 | 3.22 | .71 | .133 | .876 |
| | 고졸 | 149 | 3.17 | .80 | | |
| | 대졸이상 | 120 | 3.22 | .82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21 | 3.16 | .76 | .041 | .959 |
| | 고졸 | 193 | 3.21 | .80 | | |
| | 대졸이상 | 73 | 3.21 | .82 | |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3.17 | .93 | 1.832 | .123 |
| | 200~300만원 미만 | 76 | 3.14 | .74 | | |
| | 300~400만원 미만 | 94 | 3.10 | .82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3.29 | .73 | | |
| | 500만원 이상 | 46 | 3.46 | .81 | | |

④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역할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M=2.82)이 남학생(M=2.71)보다, 1학년(M=2.81)이 3학년(M=2.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말이(M=2.9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 학력이 고졸(M=2.78), 대졸(M=2.78)이상인 청소년, 어머니 학력이 고졸(M=2.82)인 청소년, 가정의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M=2.88)인 청소년이 성교육 역할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학년,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성교육 역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성교육 역할에 있어서는 평균이 다른 부모역할의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녀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고, 부모는 이를 토대로 자녀가 올바른 성역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able 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역할의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F | p |
|----------|--------------|-----|------|------|-------|------|
| 성 별 | 남 | 116 | 2.71 | .97 | -.974 | .331 |
| | 여 | 178 | 2.82 | .98 | | |
| 학 년 | 1학년 | 155 | 2.81 | 1.00 | .634 | .527 |
| | 3학년 | 139 | 2.74 | .95 | | |
| 출생순위 | 말이 | 104 | 2.95 | .91 | 2.051 | .107 |
| | 중간 | 19 | 2.82 | 1.06 | | |
| | 막내 | 141 | 2.64 | 1.02 | | |
| | 외동 | 30 | 2.77 | .85 | | |
| 아버지 학력 | 중졸 이하 | 17 | 2.56 | .85 | .398 | .672 |
| | 고졸 | 149 | 2.78 | 1.01 | | |
| | 대졸이상 | 120 | 2.78 | .95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21 | 2.55 | 1.08 | .877 | .417 |
| | 고졸 | 193 | 2.82 | .96 | | |
| | 대졸이상 | 73 | 2.72 | 1.01 | |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2.88 | .99 | .185 | .946 |
| | 200~300만원 미만 | 76 | 2.76 | 1.01 | | |
| | 300~400만원 미만 | 94 | 2.76 | 1.12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2.72 | .74 | | |
| | 500만원 이상 | 46 | 2.84 | .82 | | |

위의 부모역할인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영인(2010)의 중학생의 양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중학생의 경우 부모역할이 여성에게 좀 더 편중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은 부모역할에 있어 고정된 성역할이 아닌 남녀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의 역할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속력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9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M=3.41), 여학생(M=3.20)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간의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94$, $p<.05$).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M=3.46), 200~300만원 미만

(M=3.07), 300~400만원 미만(M=3.18), 400~500만원 미만(M=3.45), 500만원 이상(M=3.52)으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200~300만원 이상 보다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013$, $p<.01$).

가족관계의 결속력에 있어서 학년이나 출생순위,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박윤정(2011)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족 간의 응집성이 낮게 나온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남학생이 가족 간에 서로 도와주고,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지하였고,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가족간의 결속력이 높다고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속력의 차이

| 구 분 | | N | M | SD | t/F | p |
|----------|--------------|-----|--------------------|-----|---------|------|
| 성 별 | 남 | 116 | 3.41 | .73 | 2.294* | .022 |
| | 여 | 178 | 3.20 | .79 | | |
| 학 년 | 1학년 | 155 | 3.23 | .87 | -1.136 | .257 |
| | 3학년 | 139 | 3.33 | .64 | | |
| 출생순위 | 말이 | 104 | 3.26 | .78 | .544 | .653 |
| | 중간 | 19 | 3.12 | .86 | | |
| | 막내 | 141 | 3.29 | .76 | | |
| | 외동 | 30 | 3.40 | .70 | | |
| 아버지 학력 | 중졸 이하 | 17 | 3.12 | .70 | .320 | .726 |
| | 고졸 | 149 | 3.28 | .78 | | |
| | 대졸이상 | 120 | 3.28 | .78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21 | 3.30 | .78 | .016 | .985 |
| | 고졸 | 193 | 3.28 | .75 | | |
| | 대졸이상 | 73 | 3.30 | .80 | |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3.46 ^{AB} | .87 | 4.013** | .003 |
| | 200~300만원 미만 | 76 | 3.07 ^B | .69 | | |
| | 300~400만원 미만 | 94 | 3.18 ^{AB} | .84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3.45 ^{AB} | .62 | | |
| | 500만원 이상 | 46 | 3.52 ^A | .72 | | |

* $p<.05$; ** $p<.01$; A, B :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Duncan)

②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성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10과 같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M=3.41), 여학생(M=3.1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간 사이가 매우 좋고 친하다고 인식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73$, $p<.01$). 이는 박윤정(2011)의 중학생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 만족도 연구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M=3.10), 3

학년(M=3.38)으로 3학년이 1학년 보다 친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27$, $p<.01$). 가정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M=3.27), 200~300만원 미만(M=3.01), 300~400만원 미만(M=3.20), 400~500만원 미만(M=3.41), 500만원 이상(M=3.47)으로 500만원 이상이 가장 친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200~300만원 이상 보다 친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255$, $p<.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가족의 월 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결속력에 있어서는 가정의 월소득 500만원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밀성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400~500만원 미만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에서 친밀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정 경제수준과 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Table 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친밀성의 차이

| 구분 | N | M | SD | t/F | p |
|----------|--------------|-----|--------------------|----------|------|
| 성별 | 남 | 116 | 3.41 | 2.973** | .003 |
| | 여 | 178 | 3.13 | | |
| 학년 | 1학년 | 155 | 3.10 | -3.027** | .003 |
| | 3학년 | 139 | 3.38 | | |
| 출생순위 | 말이 | 104 | 3.17 | 2.518 | .058 |
| | 중간 | 19 | 2.83 | | |
| | 막내 | 141 | 3.31 | | |
| | 외동 | 30 | 3.35 | | |
| 아버지 학력 | 중졸 이하 | 17 | 2.99 | .821 | .441 |
| | 고졸 | 149 | 3.25 | | |
| | 대졸이상 | 120 | 3.23 | | |
| 어머니 학력 | 중졸 이하 | 21 | 3.24 | .058 | .944 |
| | 고졸 | 193 | 3.23 | | |
| | 대졸이상 | 73 | 3.27 | | |
| 가정의 월 수입 | 200만원 미만 | 32 | 3.27 ^{AB} | 3.255* | .012 |
| | 200~300만원 미만 | 76 | 3.01 ^B | | |
| | 300~400만원 미만 | 94 | 3.20 ^{AB} | | |
| | 400~500만원 미만 | 46 | 3.41 ^{AB} | | |
| | 500만원 이상 | 46 | 3.47 ^A | | |

* $p<.05$; ** $p<.01$; A, B :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냄(Duncan)

3.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의 관계

1)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11에서와 같이, 부모 양육태도의 권위/무시형은 결속력($r=-.38$, $p<.01$), 친밀성($r=-.37$,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문형은 결속력($r=.63$, $p<.01$), 친밀성($r=.4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역할의 자녀 훈육역할은 결속력($r=.66$, $p<.01$), 친밀성($r=.46$,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본육구 충족역할은 결속력($r=.63$, $p<.01$), 친밀성($r=.4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은 결속력($r=.44$, $p<.01$), 친밀성($r=.27$,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교육 역할은 결속력($r=.49$, $p<.01$), 친밀성($r=.29$,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존중하고, 적절한 사랑을 구사하여 자녀의 능력을 키워주고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을 높게 인지하며,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율을 막거나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으며, 자녀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부정적 의미의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은 가족 간의 결속력, 친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역할에 있어서 위의 네 가지 유형의 역할 모두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역할 중 어느 하나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역할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able 11.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권위/무시형 | 1 | | | | | | | |
| 2. 전문형 | -.41** | 1 | | | | | | |
| 3. 자녀 훈육역할 | -.40** | .52** | 1 | | | | | |
| 4. 기본육구 충족역할 | -.41** | .62** | .58** | 1 | | | | |
| 5.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 -.24** | .30** | .56** | .36** | 1 | | | |
| 6. 성교육 역할 | -.10 | .43** | .40** | .39** | .41** | 1 | | |

| | | | | | | | |
|--------|--------|-------|-------|-------|-------|-------|-------|
| 7. 결속력 | -.38** | .63** | .66** | .63** | .44** | .49** | 1 |
| 8. 친밀성 | -.37** | .48** | .46** | .48** | .27** | .29** | .67** |

* p<0.05; ** p<0.01

2) 부모 양육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양육태도(권위/무시형, 전문형)를 독립변수, 가족관계 만족도(결속력, 친밀성)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2. 부모 양육태도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
| | <i>B</i> | <i>SE</i> | β | | |
| (상수) | 1.663 | .237 | | 7.006 | .000 |
| 권위/무시형 | -.173 | .058 | -.147 | -2.999** | .003 |
| 전문형 | .602 | .052 | .573 | 11.687*** | .000 |

$R^2=.418$, $F=104.688$ ***, $p=.000$

* p<0.05; ** p<0.01; *** p<0.001

① 부모 양육태도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41.8%로 나타났으며, F값은 104.68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양육태도(권위/무시형, 전문형)가 결속력의 회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살펴보면 권위/무시형($\beta=-.147$, $p<.01$)이 결속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형($\beta=.573$, $p<.001$)이 결속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이는 권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속력이 낮아지고, 전문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 양육태도가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6.4%로 나타났으며 F값은 52.25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13에서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권위/무시형, 전문형)가 친밀성의 회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살펴보면 권위/무시형($\beta=-.215$, $p<.001$)이 친밀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형($\beta=.387$, $p<.001$)이 친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친밀성이 낮아지고, 전문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느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를 낮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13. 부모 양육태도가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
| | <i>B</i> | <i>SE</i> | β | | |
| (상수) | 2.375 | .277 | | 8.578 | .000 |
| 권위/무시형 | -.262 | .067 | -.215 | -3.902*** | .000 |
| 전문형 | .422 | .060 | .387 | 7.023*** | .000 |

$R^2=.264$, $F=52.254$ ***, $p=.000$

* p<0.05; ** p<0.01; *** p<0.001

3)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역할(자녀 훈육역할, 기복육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역할)을 독립변수, 가족관계 만족도(결속력, 친밀성)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부모역할이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 역할이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56.5%로 나타났으며, F값은 93.76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역할(자녀 훈육역할, 기복육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역할)이 결속력의 회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살펴보면 자녀 훈육역할($\beta=.385$, $p<.001$), 기복육구 충족역할($\beta=.314$, $p<.001$), 성교육 역할($\beta=.200$, $p<.001$)이 결속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훈육역할, 기복육구 충족역할, 성교육 역할이 높을수록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부모역할이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
| | <i>B</i> | <i>SE</i> | β | | |
| (상수) | -.119 | .188 | | -.634 | .527 |
| 자녀 훈육역할 | .412 | .058 | .385 | 7.157*** | .000 |
| 기본육구 충족역할 | .377 | .058 | .314 | 6.446*** | .000 |
|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 .032 | .046 | .033 | .688 | .492 |
| 성교육 역할 | .157 | .035 | .200 | 4.477*** | .000 |
| $R^2=.565$, $F=93.763$ ***, $p=.000$ | | | | | |

* $p<0.05$; ** $p<0.01$; *** $p<0.001$

② 부모역할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역할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8.5%로 나타났으며 F값은 28.81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역할(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역할)이 친밀성의 회귀계수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간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살펴보면 자녀 훈육역할($\beta=.259$, $p<.001$), 기본육구 충족역할($\beta=.310$, $p<.001$)이 친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이 높을수록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 중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녀들은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15. 부모역할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유의 확률 |
|--------------|----------|-----------|-----------------|----------|-------|
| | <i>B</i> | <i>SE</i> | Beta(β) | | |
| (상수) | .667 | .250 | | 2.665 | .008 |
| 자녀 훈육역할 | .287 | .076 | .259 | 3.757*** | .000 |
| 기본육구 충족역할 | .386 | .078 | .310 | 4.968*** | .000 |
|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 -.009 | .061 | -.009 | -.154 | .878 |
| 성교육 역할 | .055 | .047 | .067 | 1.166 | .245 |

$R^2=.285$, $F=28.817$ ***, $p=.000$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94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문형이 권위/무시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에 대한 양육태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역할은 기본육구 충족역할이 가장 높았고, 자녀 훈육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 역할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 중 성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성교육에 대한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부모교육에 있어 자녀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결속력, 친밀성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3학년이 1학년보다 권위/무시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3학년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과 입시라는 큰 관문에 놓여져 있기에,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조금 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형의 경우에는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청소년이 높게 나타나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을 살펴보면, 자녀 훈육역할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육구 충족역할은 3학년이,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학년,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본육구 충족역할에 있어서는 정서적 측면의 욕구사항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측면의 내용

도 포함되어 있기에 가정의 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결속력에 있어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가족 간에 서로 도와주고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지하였고,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나 성별,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밀성에 있어서는 결속력과 마찬가지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가족 간에 사이가 더 좋고 친하다고 인지하였고, 1학년 보다 3학년에서,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나 성별, 학년,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관계 만족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정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결속력에 있어서는 가정의 월 소득 500만원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친밀성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400~500 만원 미만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에서 친밀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정 경제수준과 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부모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부모 양육태도의 권위/무시형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결속력, 친밀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문형은 결속력, 친밀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양육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고, 부모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즉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양육태도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역할의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 건강/생존기술 교육역할, 성교육 역할모두 결속력, 친밀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의 역할 중 어느 하나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 모두가 자녀에게 중요하며, 가족관계 만족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 양육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권위/무시형은 결속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형은 결속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결속력이 낮아지고, 전문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 중 친밀성은 권위/무시형이 친밀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형이 친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위/무시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친밀성이 낮아지고, 전문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느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를 낮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모역할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 성교육 역할이 결속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 성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역할이 친밀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이 친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이 높을수록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 중 자녀 훈육역할, 기본육구 충족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녀들은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역할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중 자녀 훈육역할과 기본육구 충족역할이 결속력, 친밀성에 공통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에 대한 훈육역할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소년기에만 해당되는 부모의 역할이 아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부모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부모가 사랑과 애정을 적절하게 주는 것으로 인지할 때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부모역할이 어느 한 가지 역할의 충족만이 아닌 전반적인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때, 가족관계 만족도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변화된 지금 부모들은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양육태도 및 자신의 부모역할수행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 및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올바른 부모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래의 부모가 될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족 내 갈등 발생 시 당면한 가족 간의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사회가 직접 나서서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족을 모두 건강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도록

록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고등학생들의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 인식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에 덧붙여 연구자가 후속 연구에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그 외 개인의 성격적 특성, 처해진 주변 환경, 또래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알아보면 더욱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서 인지한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을 알아보다 각각을 서로 비교분석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를 통해 새롭고 변화된 부모역할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외되었기에,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이들도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연구대상들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수목적고, 예술 고등학교 등 다양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 전반에 대해 연구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중학생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인식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안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입장에서 그들이 부모를 통해 인지한 양육태도, 부모역할,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그들의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양육태도, 역할 등에 대해 동시에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부모-자녀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인식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차이로 인해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의 부모역할 프로그램,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로 나온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토대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후속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더욱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상을 서울, 경기지역 일부에만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연구 범위를 타 지역 학생들까지로 넓힘으로써 서로 비교해 본다면,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할에 대한 특징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더욱더 다양

하고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이 제외되었기에 이 연구결과를 고등학생들의 생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부모 양육태도, 부모역할 인식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다양한 변인들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 있어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통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가 다소 미흡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란해.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1(1)*, 39-52.
- 강진희. (2000). 군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오걸. (2005).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숙이. (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애착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2000).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 김영희, 최명선. (2001). 의미분석법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이미지 연구. *놀이치료연구, 4(2)*, 3-14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애. (199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경. (2008). 중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유안진. (2011). *인간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혜영.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경. (1992).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

- 교육에 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철. (2004). 양육태도와 자아분화 수준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경. (200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 (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진선.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희정. (201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경. (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회, 10(3)*, 105-125.
- 박건주. (2009). 경기지역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진로 성숙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원. (2003).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정. (2011). 중학생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2003).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 연구: 인천광역시 고등학생의 형제자매관계와 부모의 배우자관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용운, 이태숙 (2010). 노인 부양스트레스가 가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5(4)*, 115-136.
- 오영희, 엄정애. (1999). **부모교육**. 서울 : 동현출판사
- 오유자. (2004).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한 컴퓨터 게임중독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효과.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 김연진, 고진영. (2008). **결혼과 가족관계를 위한 부모 교육**. 서울: 학지사.
- 이국화. (2012).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 (198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관 및 자녀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인. (2010). 중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모. (2001). 부모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차이.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경. (2005). 가족관계 증진 집단상담 참여자의 변화과정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 10(1)*, 122-155.
- 정손태. (2002). 한 부모 가족 청소년의 부모역할 지각이 역할정립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숙연. (199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1977). **교육환경론: 교육과학신서 제8권**. 서울: 교육출판사.
- 조미숙, 오선주. (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 4(1)*, 67-89
- 천윤숙. (2007). 현대가족문제에 대한 불교상담적 접근: 부모-자녀간의 갈등해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숙. (1992). 남녀중학생의 가족영역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도, 흥미도, 실생활적용도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원영. (2005).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착 및 자기상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규숙. (1999). 부모 양육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